

평창동계올림픽 G-2년, 제대로 준비되고 있나

“이제는 평창”... 남아공 더반의 기적을 대한민국의 영광으로

-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2년 앞으로, 경제적 효과 65조원에 이를 듯 -

송헌석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보도지원부장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1년 7월 6일, 대한민국 평창은 지구 반대편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다. 햇수로는 12년, 3번의 눈물겨운 도전 끝에 유치한 대회였다. 온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정부와 강원도, 재계 등 모두가 합작한 결과물이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개최하는 지구촌 최고의 잔치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축적된 우리나라의 힘이 서울올림픽을 통해 분출됐듯이, 평창동계올림픽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값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계올림픽 개최로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체육 선진국으로 올라서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개최

한 바 있으며, 동계올림픽까지 치른다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대 국제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된다. 이를 통해 세계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오르는 확고한 위상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동계올림픽을 통해 최고의 동계 중



지난 2011년 7월 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의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린 올림픽프라자 전경(조감도).

목 인프라와 운영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치르면서 축적되는 경험과 노하우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다.

국가 이미지 상승과 국민 자긍심 고취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 및 지역 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는 경제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 측면이다.

먼저, 경제적 측면은 모든 개최지의 최대 관심사다. 각종 올림픽 투자에 관련된 고용창출 및 생산 유발 효과, 도로·철도 등 각종 인프라 확충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시속 250km가 넘는 원주~강릉간 고속철도(KTX)가 개설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 30분대의 거리로 좁혀지게 돼 강원도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광주에서 강원도 원주까지의 제2영동고속도로와 강원도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놓

이면서 강원 도내의 여행 거리가 크게 단축돼 관광객 유치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월에 뉴욕타임즈가 ‘2016년 꼭 가봐야 할 곳 52곳’에 평창을 선정했던 것처럼 강원도 지역이 국내외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국가 이미지가 개선되고 국가 브랜드가 상승하면 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경제연구소는 지난 2011년,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약 65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로 경기장, 교통망, 숙박 시설 등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총투자로 약 16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내·외국인 관광객 소비 지출과 올림픽 대회 경비 지출로 약 4조원의 직접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적 측면에서는 인지도가 낮은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경우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함에 따라 발생하는 관광 수입과 개최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이에 따른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 동반

상승 효과와 대한민국 제품의 수출 증가, 그리고 레저 및 스포츠 산업 자체의 활성화 등으로 약 43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숫자로 제시되는 경제적 효과 못지않게 무형의 개최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문화적 자산으로는 첫째, 국격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효과, 둘째, 국민들에게 선진국 진입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효과, 셋째, 사회 통합과 선진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는 효과, 넷째 스포츠 외교력을 강화하는 효과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세계에 알렸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이 확실히 선진국에 진입했음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 평창과 일본 도쿄(2020 하계올림픽), 중국 북경(2022년 동계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어 세계 스포츠 역사에 동북아의 달라진 위상을 한껏 떨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 건설 등 대회 준비 순조롭게 진행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조양호)는 평창 대회를 역사에 길이 남는 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우선, 경기장 시설이다. 경기장과 대회 관련 시설을 테스트 이벤트(2016년 2월~2017년 4월) 경기 일정에 맞춰 완공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 필요한 경기장은 총



평창동계올림픽을 2년 앞두고 지난 2월 6일부터 7일까지 2016 FIS 스키월드컵이 열린 정선 알파인센터. 당초 공기 지연과 이상기후 등으로 대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대한민국의 놀라운 건설 기술과 능력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12곳. 이 중 6곳은 신설 경기장이며, 2곳은 기존 경기장을 보완하고, 4곳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게 된다. 신설 경기장은 설상 경기 2곳(알파인 경기장, 슬라이딩 센터)과 빙상 경기장 4곳(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피겨/쇼트트랙 경기장, 아이스하키 경기장 2곳)으로 나뉘며, 2016년 2월 현재 공정률 30~65%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 경기장 개·보수도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다. 올림픽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릴 개·폐회식장은 평창군 황계리에 짓고 있으며, 2017년 9월에 준공 예정이다.

또한 선수촌과 미디어촌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방송 및 언론 지원을 위한 국제방송센터(IBC)도 건설 중에 있고, 메인프레스센터(MPC)는 기존 시설인 알펜시아 컨벤션센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회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도 필수다. 원주~강릉 고속철도(2017년 12월 완공), 제2

영동고속도로(경기도 광주~원주, 2016년 11월 완공),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2017년 12월 완공), 국도 6호선 및 59호선(2017년 12월 완공) 일부 구간이 공사 중이며, 기존 진입 도로 9개 노선과 추가 진입 도로 7개소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대회 시설 등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대회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계획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6~7일 정선 알파인센터에서 열린 2016 FIS 알파인월드컵대회를 시작으로 테스트 이벤트 대회가 연이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다. 테스트 이벤트란 올림픽 개최에 앞서 올림픽과 동일한 경기장 환경에서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세계선수권대회나 월드컵 등 국제 공인 경기를 말한다. 올림픽 개최 전까지 크고 작은 28개의 대회가 치러진다. 조직위원회는 테스트 이벤트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강원도와 평창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우리나라에서 동계 종목은 아직은 비인기 종목이며, 그동안 올림픽을 비롯한 국제 대회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이나 김연아 선수가 활약한 피겨 종목 등을 제외하면 대중들에게 다소 낯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운영할 인력도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 기술 및 전문 지원 인력뿐만 아니라 운영 요원과 자원 봉사자 등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경기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대회 참관, 트레이닝 이벤트 등을 개최하여 운영 인력과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는 올림픽 경험과 역

량을 갖춘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컨설팅 계약을 통해 자문을 받고 있다. 현재 스포츠 매니저와 경기 프로젝트 등을 담당할 해외 전문가 9명을 채용했으며, 경기와 개·폐막식, 입장권 판매 분야에 29명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문화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 대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개·폐회식 총감독으로 난타를 기획한 송승환 씨를 총감독으로 선정했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감독단을 구성한 상태이다.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할 성화 봉송도 전 국민이 참여하여 대회 비전에 공감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여정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조직위원회는 앞으로 올림픽 홍보 강화를 통해 전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창올림픽 상설 홍보관을 이미 강릉 지역에 설치하고, 정부 청사 및 전국에 산재한 전광판에 올림픽 스팟 홍보와 개최 도시에 올림픽 상징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최 500일 전 등 계기별로 홍보 이벤트를 열고 SNS 및 언론을 통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전 국민적인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직위원회뿐만 아니라 개최 도시인 강원도와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이 합동으로 올림픽 개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원도 평창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지역이 아니다. 평창은 20~30년 후에는 '전 세계인이 가고 싶어 하고 즐겨 찾게 되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CERIK